

AI · 융복합 K - 뷰티 서비스 지원방안

—AI진단·맞춤형제조, 메디컬 뷰티 순주기 지원 중심—

2026.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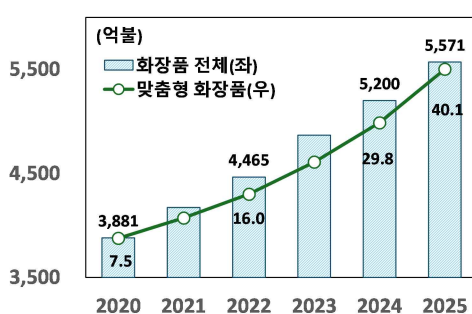
관 계 부 처 합 동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요약)

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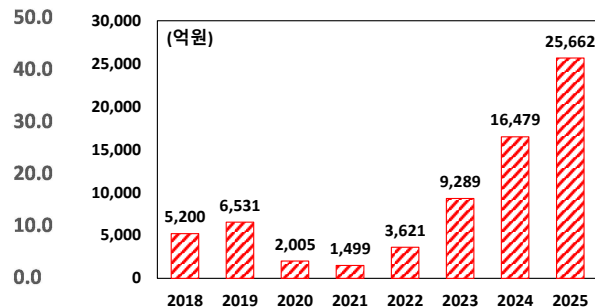
- AI·융복합 확산으로 피부진단, 로봇조제 등 진단-추천-제조-구매-사후관리로 연결되는 글로벌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 방한 외국인의 피부관리·메이크업, 메디컬 뷰티 등 융복합 뷰티 서비스 (뷰티+의료관광)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글로벌 시장 규모>



출처: 보건산업진흥원('25) 등

<외국인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출액>



출처: 한국관광공사('26)

➔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가 결합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글로벌 확산을 지원

* AI, 데이터, 디바이스 등이 결합해 초개인화된 진단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

II 추진방안

1 AI 진단 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 新서비스 집중 육성

① (피부 데이터뱅크*) AI 학습에 적합한 AI Ready 데이터로 개편하고 대상국가를 확대해 AI 피부진단과 개인 맞춤형 솔루션 등 개발 지원('27년)

* 18개국 1.7만여명 피부특성정보를 가공·정제한 데이터 제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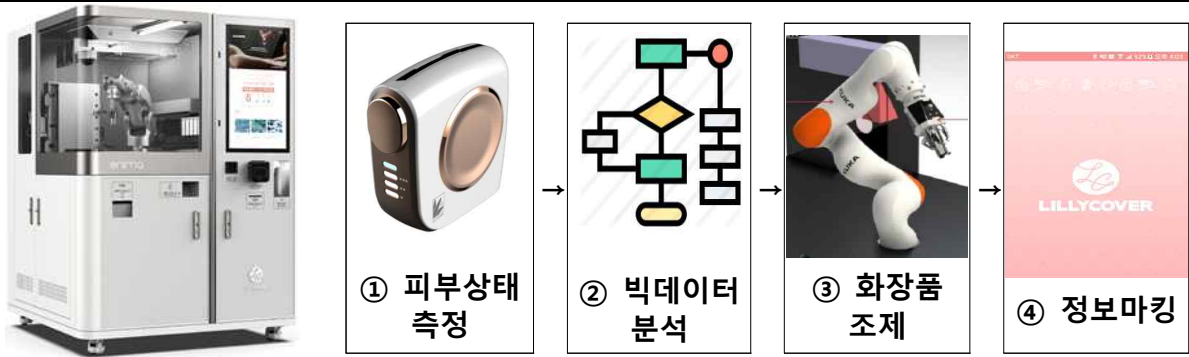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방한 외국인(2,000명) 등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 설문 데이터 등 제공

② (R&D) 맞춤형 화장품 업계 등에 공통 활용 가능한 품질·공정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화장품-AI기업 연합 R&D* 지원('26~'27년 72억원)

- 업계의 AI·융복합 혁신* 지속확산을 위해 기업 등과 함께 유망 기술군을 도출('27년), 핵심 원천기술 및 실증연계 R&D 지원

* ('25~'26 CES 혁신) 스카 뷰티 디바이스, 전자피부 플랫폼, AI 피부분석 솔루션 등

< 참고: AI·자동화기기 활용 맞춤형 화장품 제조 흐름 >



※ 피부측정 → 배합결정(알고리즘 분석) → 토출·교반(로봇팔이 이동하며 조제) → 사용법·성분표 등 정보마킹(App 연동) → 제공

③ (애로해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1인이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매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27년)

* 소비자의 피부 특성, 기호, 진단 결과 등에 따라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현행) 조제관리사가 매장마다 상주 필요 → (개선) 조제관리사 1인이 여러 매장 관리

- AI·자동화기기의 품질 일관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점검 항목, 검교정, 적격성평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④ (제도기반 정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28년~) 안착을 위한 DB 구축, 기업 컨설팅 지원 확대('27년) 등 인프라 구축

* (컨설팅·교육) '26년 17억(컨설팅 1,200개소) → '27년 19억(컨설팅, 교육기관 운영)

2 관광·쇼핑·화장품 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역 및 글로벌 확산 지원

① (지역 생태계) 한국 방문시 피부-헤어-메이크업, 관광·쇼핑 등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결제 등 온·오프라인 기반을 확충

- (결제편의) 외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앱으로 현장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한 표준 QR 코드* 설치업장 확대 가속화('26년 4만개→'27년 8만개)

* 22개 국가 71개 앱(알리페이 등) 연동 가능

- (K-뷰티 클러스터) 외국인이 많은 핵심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바이어 상담 등을 결합한 K-뷰티 지역거점 조성(경주, 제주 2개소)

- (K-뷰티 아카데미) 글로벌 전문 교육시설 개원을 통해 내·외국인 K-뷰티 서비스 인력을 양성(오송, '27.上, 연평균 1,900명)

② **(수출지원)** AI 활용 해외규제·시장정보 등 제공국가를 신흥국까지 확대('27년)하고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인증을 지원

- **(인증·판로)** 주요 전략국 K-뷰티 플래그십 스토어(판매장) 확대('26년 8개소 → '27년 중국 등 확대) 및 '뷰티테크 체험존' 설치
- **(지식재산권)**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하여 위조의심제품 정보공유 및 구매검사, 정품인증* 등 뷰티기업 IP(Intellectual Property) 보호 강화
- * 국가인증상표(권리자: 대한민국) → 소비자 정품확인 →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

③ **(금융지원)**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 집행,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을 통해 업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유망 기업을 우대보증***('26년)

- * 제조 앵커기업(한국콜마, 코스맥스)과 공동으로 조성('25.12월 결성완료, 430억원 규모)
- ** 뷰티테크 등 스타트업과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금액의 1배수 내에서 매칭 투자(40억원 한도)
- *** 보증비율: 85% → 최대 95% 상향, 보증료율: 0.2%p 감면('26년 1,200억원)

③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주기 지원**

*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화장품, 의료기기, 관광, 미용 등이 융복합된 서비스

① **(유치)** 외국인 환자가 의료기관 정보 확인부터 예약·결제·진료 전후관리·숙박·관광까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 추진

-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 의원급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하고('26.10월),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 심사요건·절차 개선 검토**('27.上 시범사업)

- * 유치업자 신청 요건 완화(年 500건→200건) 및 병원 지역가점(10점) 신설('26.6.)
- ** (현행 발급대상) ①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이 있고, ②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며, ③재정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환자

② **(체류 패키지)** 지방정부 공모 등을 통해 메디컬 뷰티 복합 거점을 구축하고 항노화 등 고부가 서비스 연계 패키지 개발·운영 추진

-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별 의료기관의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現 2명)를 **상향하고**('27년) 환자의 권리·책임, 계약서 등을 다국어로 개정·배포

③ **(해외진출)**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K-바이오데스크*(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수출현장 지원)를 K-뷰티까지 확장('27년)

- * 의약품, 의료기기 주요 수출 지역인 뉴욕,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베이징, 두바이, 호치민, 상파울루 등 7개소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전담 지원 기능 수행
- **해외 의료시장 진출 전문가 Pool을 활용해 메디컬 뷰티 융복합 서비스 분야 사업운영 및 안착*까지 전주기 지원**('27년)
- * 프로젝트 지원사업(국외 의료서비스 동반 진출 분야에 메디컬 뷰티 포함)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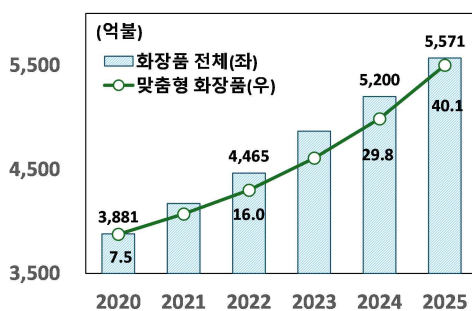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추진과제	3
1. AI 진단 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 新서비스 집중 육성	3
2.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역·글로벌 확산	6
3.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	9
IV. 주요과제 추진일정	12

I. 추진배경

□ AI 진단 맞춤형 화장품 등 AI·융복합 뷰티 서비스 산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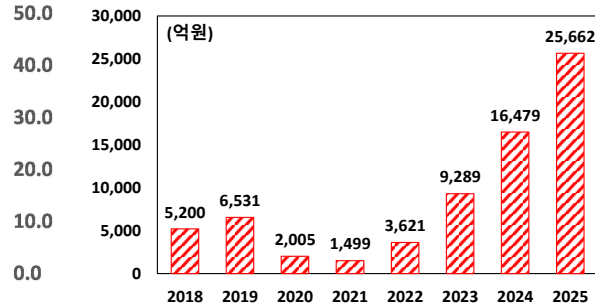
- AI·융복합 확산으로 피부진단, 로봇조제 등 진단-추천-제조-구매-사후관리로 연결되는 글로벌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 방한 외국인의 피부관리·메이크업, 메디컬 뷰티 등 융복합 뷰티 서비스 (뷰티+의료관광)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글로벌 시장 규모>



출처: 보건산업진흥원('25) 등

<외국인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출액>



출처: 한국관광공사('26)

□ 기술 개발, 규제개선, 산업간 융복합 지원 등은 여전히 한계

-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뷰티테크 특허출원은 활발하지만, 뷰티 서비스(애플리케이션) 특허출원은 상대적으로 열세

* 뷰티테크 특허 출원(%,'22): [전체] **(한국) 44.1** (미국) 32.4 (EU) 15.2 (일본) 8.2
[서비스] (한국) 26.9 **(미국) 47.0** (EU) 14.2 (일본) 11.9

- 인체와 맞닿는 뷰티산업 특성으로 인해 보수적인 규제 중심으로 제도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산업간 융복합 지원체계가 미비

- 화장품법(1999년 제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중심, 공중위생 관리법(1999년 제정)은 뷰티 서비스 면허발급 등에 치중
- 화장품-이미용-관광-의료 등 뷰티 연관 산업의 관리·진흥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령이 산재

* 복지부(화장품 진흥, 이미용, 의료), 식약처(화장품 안전, 규제지원), 문체부(관광), 법무부(출입국), 산업·중기부(해외진출, 기업성장), 과기부(R&D) 등

☞ 고부가가치 산업인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성장을 위해 맞춤형 화장품 등 新서비스 육성, 메디컬 뷰티 경쟁력 제고 추진

* AI, 데이터, 디바이스 등이 결합해 초개인화된 진단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

Ⅱ. 추진방향

추진목표

AI 융복합 K-뷰티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중점 추진과제

① AI 진단 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 新서비스 집중 육성

AI · 융복합 R&D 지원

- 글로벌 피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피부 데이터뱅크 고도화
- 개인 맞춤형 화장품 등 공정 개선 AI Agent 개발
- AI 융복합 K-뷰티 기술 고도화 신규 R&D 후보군 발굴
- R&D 등 축진을 위한 K-뷰티 펀드 활성화

제도기반 정비

- AI · 자동화기기 활용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 화장품 신규원료 개발 지원 등을 위한 안전성 · 성능 평가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평가 방식 도입 및 스마트공장 확산 견인
- 안전성 평가 제도 안착 지원 및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②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역 · 글로벌 확산

지역 생태계 확충

- 피부 - 헤어 - 메이크업 - 관광 - 쇼핑까지 연계 가능한 온 · 오프라인 편의개선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 K-뷰티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외국인 대상 K-뷰티 서비스 교육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규제 · 시장정보 제공 확대, 합탈인증 지원
- IP 획득 지원, 국가별 맞춤형 인증획득 지원
- 수출 준비부터 생산까지 정책금융, 펀드 지원

③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한 외국인 만족도 제고

- K-헬스케어 통합 허브 구축
- 복합거점 구축 및 연계 패키지 개발 추진 검토
- 지방소재 의원급 우수 유치기관 비자 패스트트랙 확대
- 코디네이터 · 통역인력 확충 등 의료기관 사후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
- 외국인 환자 표준계약서 다국어 번역 · 보급

해외진출 지원

- 잠재 바이어 · 시장정보 DB 구축을 뷰티영역까지 확대
- 진출 유망국가 수요 발굴, 진출전략 등 사전 기획 지원
- 해외 진출 전문가 pool 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Ⅲ. 추진과제

- ◇ 고부가 산업인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 ① 맞춤형 화장품 등 집중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제도기반 정비
 - ②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역 생태계 확충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③ 메디컬 뷰티 방한 외국인 만족도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1 AI 진단 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 신서비스 집중 육성

- ◇ 글로벌 선두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해
AI·융복합 R&D를 지원하고 제도기반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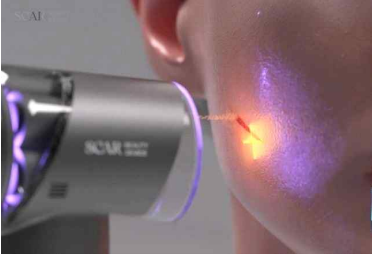
① 핵심기술 글로벌 선점을 위한 AI·융복합 R&D 지원

- (피부 데이터뱅크) AI 피부진단·분석 및 개인 맞춤형 솔루션 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피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개선
 - * 18개국 1.7만여명의 피부특성정보를 가공·정제한 데이터 제공 중
- (AI Ready 데이터 전환) 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既 구축된 피부 특성 정보를 AI 학습에 적합한 AI Ready 데이터*로 전환('27년)
 - * 데이터 형식 통일, 데이터 정제, 데이터 융합, 데이터셋 구축 등
- (국가 확대) 다양한 국가·지역별 피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신규 국가에 대한 소비자 조사 추진('27년 누적 19개국)
- (데이터 종류 확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방한 외국인 등(2천명)의 메이크업 전·후 사진* 및 설문 데이터 제공 예정('27년)
 - * 통제환경(항온·항습, 세안 등)에서 4가지 조건 촬영(카메라, 임상·영상장비, 휴대폰)
- (AI 에이전트) 맞춤형 화장품 업계 등에 공통 적용 가능한 품질·공정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화장품-AI기업 연합 R&D* 지원('27년)
 - * ('26~'27년) 24개 과제 기술실증 72억원
- 처방 설계부터 품질관리·공정·규제검토·임상효능 예측까지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공정 전주기 AI 에이전트 활용 검증(~'26.12)

□ **(AI·융복합 R&D)** 맞춤형 화장품 등 초개인화된 뷰티 서비스로 재편되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AI·융복합 R&D를 지원

- **(기술 혁신)** AI 진단에 기반한 원스톱 상처 치료제·파우더 분사, 맞춤형 피부 솔루션 제공 등 뷰티 분야 AI·융복합 혁신 성과 창출 추진

< 참고: 뷰티 분야 기업혁신 사례(CES 혁신상) >

스카 뷰티 디바이스 (한국콜마)	전자피부 플랫폼 (아모레퍼시픽)	AI 피부분석 솔루션 (룰루랩)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 AI 알고리즘이 정밀 분석하고, 사용자 피부톤에 맞는 치료제와 커버 메이크업 파우더를 조합해 정밀하게 분사	초박형 센서패치, AI 기반 App 등을 통해 피부 노화 원인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스킨케어 루틴과 제품 제안	AI가 자동으로 얼굴을 스캔해 피부분석을 수행, 빅데이터 기반 피부분석 결과에 따라 화장품, 시술 등의 솔루션을 추천

- **(R&D 지원)** 글로벌 동향 조사,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유망기술군을 도출('27년)하고 핵심 원천기술 및 실증연계 R&D 지원

2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제도기반 정비

□ **(현장애로)** 품질·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제조·판매가 가능한 AI·자동화기기 활용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추진('2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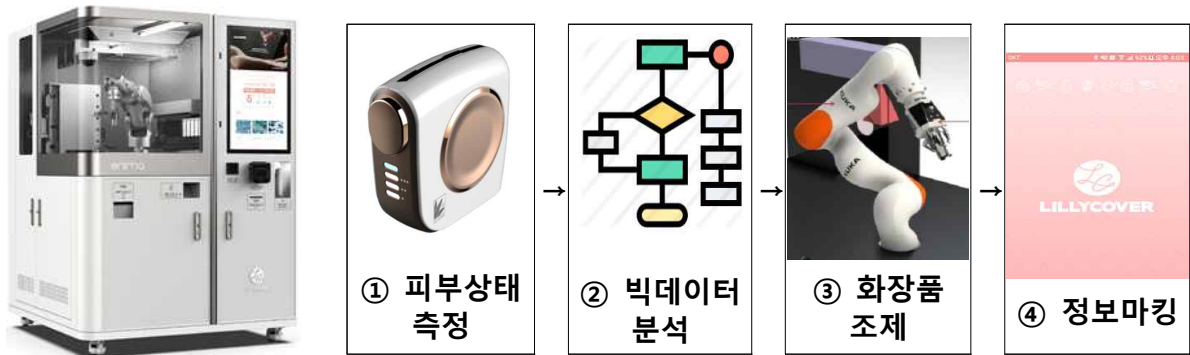
* 소비자의 피부 특성, 기호, 진단 결과 등에 따라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1인이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의 원료·기구 등의 품질·위생 및 완제품 안전성 등 관리

* 실증특례('22~'26.12) → 산업계 의견 수렴 및 화장품법령 개정 추진('27년)

- AI·자동화기기의 품질 일관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항목, 검교정, 적격성평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참고: AI·자동화기기 활용 맞춤형 화장품 제조 흐름 >



※ 피부측정 → 배합결정(알고리즘 분석) → 토출·교반(로봇팔이 이동하며 조제) → 사용법·성분표 등 정보마킹(App 연동) → 제공

□ **(글로벌 규제)**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성능 평가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화장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평가기술)** 글로벌 흐름에 맞는 비임상시험 방식 자외선 차단 평가*를 도입**하고('27.上), 심사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양식 등 지원

* 사람 피부 대신 실험실에서 인공 기판과 장비를 이용해 자외선 흡수와 투과 특성을 측정

**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식약처 고시)

- **(품질)** 단계적으로 국제규제와 조화된 화장품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기술 지도 등 GMP 인증·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27.下)

* 스마트공장 지원 기업: ('26년) 13개 → ('27년) 113개 목표

□ **(안전성 평가)** 화장품안전성평가 제도('28년~) 안착을 위해 원료 독성 정보 DB 구축 및 평가 컨설팅 지원 확대('27년) 등 인프라 강화

* **(원료DB R&D)** '26년 29.6억 → '27년 42.3억('29년까지 약 1만 종 구축 목표)

** **(컨설팅·교육)** '26년 17억(컨설팅 1,200개소) → '27년 19억(컨설팅, 교육기관 운영)

□ **(육성기반)** 종합계획 수립, R&D·해외진출 등 화장품 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장품산업육성법」 본격 시행*

* 국회 제정안 발의('25.12월) → 본회의 통과('26.8월) → 시행('27.9월)

- ◇ **관광·쇼핑·화장품** 융복합 K-뷰티 서비스 국내 생태계 지원 강화 및 글로벌 확산 지원

① 관광·쇼핑 연계 등 융복합 서비스 지역 생태계 확충

- **(논스톱 K-뷰티)** 한국 방문시 피부-헤어-메이크업, 관광·쇼핑 등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결제 등 온·오프라인 기반을 확충
 - (뷰티체험) 홍대·명동·부산 K-뷰티 체험·홍보관(Beauty Play)을 통해 AI 피부진단·가상 메이크업·뷰티 세미나 등 운영
 - (결제편의) 외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앱으로 현장에서 간편결제가 가능한 표준 QR 코드* 보급 가속화('26년 4만개→'27년 8만개)
 - * 22개 국가 71개 앱(알리페이 등) 연동 가능
 - (융합상품) 치료·회복·뷰티·관광을 융합한 K-뷰티 연계상품* 프로모션 및 모객 확대('26년 목표 1.8만명)
 - * (예) 호텔(숙박)-건강검진(의료)-스파(웰니스)-고궁투어(관광)-백화점(쇼핑) 등 연계 상품
- **(지역거점)** 외국인이 많은 핵심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바이어 상담 등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 조성(경주, 제주 2개소)
 - * 제품 개발·생산, 한류행사나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 마케팅, 바이어 및 투자자 상담시설, 전문인력 및 자금지원, 수출정보 제공 및 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을 집적
 - (지역상권) 면세거리·간편결제 확대, 외국인 전용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 주요 플랫폼* 노출 등 방문·쇼핑 편의 제고
 - * (예) 클룩, 크리에이티브립, 네이버, 구글 등
- **(K-뷰티 아카데미)** 헤어·메이크업 등 실습, 창업·연구실 등을 갖춘 글로벌 전문 교육시설 개원(오송, '27.上, 연평균 1,900명)
 - 특히 코트라·세종학당·뷰티 박람회 등과 협력해, K-뷰티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인증·IP·판로개척 등 글로벌 진출 밀착 지원

- **(글로벌 인증)**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고도화, 공공 할랄 인증으로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신뢰 향상 및 수출 지원('27~)
 - **(AI 규제지원)** 챗봇을 통해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 대상국가를 주요 수출국 外 신흥 수출국까지 확대
 - * (현행) 미·중·유럽 등 주요 수출국(10개국) → (확대)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러시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우즈베크, 브루나이, 스리랑카(10개국 추가)
 - **(할랄인증)** 할랄 원료 공급사 DB 구축, 컨설팅 지원 등 공적 인증 지원 체계 구축* 및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이슬람 국가 시장진출 지원
 - * '27년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 5억원
 - **(글로벌 규제협력)**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GCORAS*)를 신설해 비관세장벽 이슈 논의와 협상 주도('26.9월)
 - * **G**lobal **C**OSmetics **R**egulatory **A**uthority **S**ummit
- **(지식재산권)** 정부인증 등을 통한 뷰티기업 IP 보호 및 획득 지원
 - **(민관협업)** 위조화장품 대응 민·관 MOU* 기반, 위조 화장품 관련 정보 공유, 구매검사**, 교육 및 공동 대응정책 마련 등 협업 강화
 - *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간 업무협약(지식·식약·관세, 화장품협회, '26.6)
 - ** 위조의심제품 구매검사 및 실태조사: ('27) 4억원 신규 반영
 - **(정부인증)** 위조상품 해외 유통차단을 위해 정부가 정품을 인증*하고 침해 발생 시 권리자로서 기업과 함께 공동 대응('26.10월)
 - * 국가인증상표(권리자: 대한민국) → 소비자 정품확인 → 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
 - **(모니터링 등)**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출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AI 감정지원·상표권자 확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유통차단**('26.12월)
 - * K-브랜드 지킴이: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출원동향 분석→기업에 위험경보 등 제공('26.7월~)
 - ** 위조의심상품 감정신청(소비자) → AI 감정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최종의견(상표권자) → 환불·유통차단(온라인 플랫폼社)
 - **(권리획득)**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진출 시 권리확보 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지원*
 - * 범정부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예산 : ('25) 141억원 → ('26) 205억원

□ **(판로개척 지원)** 국가별 화장품 수출·시장 정보 등 DB 구축을 통한 AI 기반 수출통합정보 제공 등 판로개척 지원

- 주요국에 더해 중동·중남미·아프리카(이집트·남아공) 등 신흥국가*에 대한 국가별 인증 및 수출 정보 지원('27.上)

* ('26.12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 ('27.上) 중동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국가 확대

- 주요 전략국 K-뷰티 플래그십 스토어(판매장) 확대('26년 8개소 → '27년 중국 등 확대) 및 '뷰티테크 체험존' 설치하여 홍보 강화

□ **(금융 지원)** AI 융복합 K-뷰티 기술 연구개발·오픈이노베이션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K-뷰티 펀드 활성화 및 정책금융 지원

- **(K-뷰티 펀드 활성화)** 제조 앵커기업(한국콜마, 코스맥스)과 공동으로 조성한 글로벌 K-뷰티 공동펀드(430억원 규모) 투자 집행 지속*

* '25.12월 펀드 결성완료, '26.9월 기준 90억원 투자

- **(협업 촉진)** K-뷰티테크 등 스타트업과 CVC*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 조성(250억원 규모)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 :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탈

** 국내·외 대·중견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금액의 1배수 내에서 매칭 투자(40억원 한도)

- **(정책금융)** 성장유망 우수기술 화장품 기업에 우대보증* 및('26년 1,200억원) 중소 화장품 브랜드 사의 제품생산 소요자금도 지속 지원**

* 보증비율: 85% → 최대 95% 상향, 보증료율: 0.2%p 감면

** 화장품 브랜드사 초기 생산자금 대출(기업당 연간 3억원 이내, 5년 대출)

3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

- ◇ 고부가가치 메디컬 뷰티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한 외국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지 진출**을 밀착 지원

*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화장품, 의료기기, 관광, 미용 등이 융복합된 서비스

①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방한 외국인 만족도** 제고

- **(유치 활성화)** 주요 접점인 유치기관·비자·광고 분야의 신뢰성·예측가능성 강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장벽 완화
 - **(유치기관)** 외국인 환자의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K-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추진

* 의료기관 정보 제공, 예약·결제, 진료 사전·사후 관리(원격협진, 비대면진료), 숙박·관광연계 등 통합 제공, ('26년) ISP(정보화전략설계) → ('27~'28년) 플랫폼 구축
 - **(비자 패스트트랙)** 병원·유치업자 신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 의원급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6.10월)

* "유치업자" 신청 요건 완화(年 500건→200건) 및 지역가점(10점) 신설('26.6.)

 -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가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요건, 절차를 개선해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등 검토('27.上)

* (현행 발급대상) ①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이 있고, ②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며, ③재정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환자
 - **(광고 확대)** 외국인 대상 광고 허용 구역을 면세점, 공항 外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 특구*까지 확대(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시행, '26.7월)

*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부산 서구, 대구 중구·수성구
- **(체류 패키지)** 지방정부 공모 등을 통해 메디컬 뷰티 복합 거점을 구축하고 항노화 등 고부가 서비스 연계 패키지 개발·운영 추진 검토('27년)
 - 거점 지방정부·의료기관·숙박·교통·관광·유치사업자 등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 추진 검토
- **(현장지원)**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서울역·인천공항) 운영시간 연장(서울, 日 9→10시간) 및 한국의료관광 비즈니스센터* 운영 강화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오프라인) 및 한국관광산업포털(온라인)을 통한 비즈니스 매칭, 의료관광 시장조사, 마케팅 정보 제공 등

- **(사후관리 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등 환자 사후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
 - **(인력확보) 코디네이터·통역 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외국인 코디네이터 고용한도(現 2명) 상향('27.1월)
 - * 외국인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의료통역 전문과정 등(보건복지인재원)
 - **(분쟁예방) 사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환자의 권리·책임, 계약서·견적서·동의서 등을 다국어(영·중·일·러)로 개정·배포('26.12월)**

② 해외 진출을 위한 구상-사업화-현지화 쉼주기 밀착 지원

- **(구상 단계: 정보 제공 확대) K-바이오데스크 서비스***(의약품,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및 수출현장 대응 지원)를 **K-뷰티로 확장('27년)**
 - * 의약품, 의료기기 주요 수출 지역인 뉴욕, 프랑크푸르트, 오사카, 베이징, 두바이, 호치민, 상파울루 등 7개소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전담 지원 기능 수행
 - **뷰티 유통사, 에스테틱 체인, 온라인 플랫폼 등 국가별 DB 구축**
- **(사업화 단계: 해외 시장진출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잠재바이어 발굴을 위한 맞춤형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강화**
 - **(실태조사) 의료해외진출 신고현황 및 실태조사('27.上) 등을 활용하여 진출 국가 통계분석 및 수요발굴, 진출 사례 정보제공**
 - * 해외 의료기관 개설·운영 신고 총 128건('16~'25) 중 피부·성형은 총 59건(46.1%)
 - **(매칭 지원) 현지 인허가 기관, 대표 의료기관(피부과, 클리닉 등 포함)과 1:1 비즈니스 매칭, 협력기관 발굴 등 시장 개척 서비스 제공**
- **(현지화 단계: 전주기 지원)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해 의료해외진출 전문가 Pool*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 * **의료 해외진출 민간전문가(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 : 분야별(회계, 법 등), 권역별(동남아, CIS, 중동 등) 소정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 위촉('16년~, 25년 기준 91명)
 - **(지원 분야 확대) 현재 의료기관으로 한정된 지원범위를 메디컬 뷰티 융복합 서비스 분야*로 확대('27년)**
 - * (예) 시술 후 회복 케어 서비스, 항노화 웰니스 클리닉, 체형 교정, 뷰티 투어 등
 - **(쉼주기 통합 컨설팅) 법률·회계·인허가 중심 전문 컨설팅 기능을 현지 사업운영 및 안착 지원*까지 확대해 해외진출 지원 강화('27년)**
 - * 프로젝트 지원사업(국외 의료서비스 동반 진출 분야에 메디컬 뷰티 포함)

IV. 주요 과제 추진일정

정책 과제	소관부서	추진시기
1. AI 진단 맞춤형 화장품 등 고부가 신서비스 집중 육성		
· 피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복지부	'27년
· AI 에이전트 기술개발	중기부	'27년
· AI·융복합 R&D 기획	복지부	'27년
· AI·자동화기기 활용 맞춤형 화장품 제도화	식약처	'27년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단계 인프라 구축	식약처	'27년
· 글로벌 규제조화 성능평가 및 스마트공장 확산	식약처	'27년
· 화장품산업육성법 시행	복지부	'27.9월
2. 관광·쇼핑·화장품 융복합 뷰티 서비스 지역·글로벌 확산		
· 예약·결제·융합상품 등 온오프라인 기반조성	중기·문체·복지	계속
· K-뷰티 클러스터 조성(경주, 제주)	중기	'27년
· K-뷰티 아카데미 개원	복지	'27.2Q
· 글로벌 규제정보 고도화, 인증 획득 지원	식약·산업	'27년
· IP 보호 민관협업, 정품인증체계 구축	지식·식약·관세	'26.4Q
· AI 기반 수출통합정보 제공	복지부	'26.12월
· 수출 준비부터 생산까지 정책금융 지원	중기부	계속
· R&D 펀드 활성화	중기부	'26.4Q
3. 메디컬 뷰티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복합거점 구축 및 연계 패키지 개발 추진 검토	복지부	'27년
· K-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복지부	'28년
· 비자 패스트트랙 확대	복지·법무	'26.10월
· 외국인 코디네이터·통역 확대, 다국어 표준계약서 보급	복지·법무	'26.12월
· 메디컬 코리아 지원 센터 등 현장 지원	복지·문체	계속
· 해외진출 국가별 DB 확대	산업부	'27년
· 진출 유망국가 수요 발굴, 전략 수립 사전기획	복지부	'27년
·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복지부	'27년